만나고 싶었습니다

힙합으로 인간다운 삶을 노래하는

Mc Sniper

아름다운 서울 청계천 어느 공장
허리 하나 제대로 펴기 힘든 먼지로 찬 닭장
같은 곳에서 바쁘게 일하며 사는 아이들
재봉틀에 손가락 찔려 울고 있는 아이는
배우지 못해 배고픔을 참으며 졸린 눈 비벼(중략)
인간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최소의 요구
지식 부모 남편이길 버리고 죽음으로 맞선

이들에겐 너무도 절실했던 바램
하지만 무지비한 구타와 연행으로 시태를 수습한
나라에 대한 집단 비판 현실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져 몸에 불을 지른 전태일의 추락
나는 말하네
늙은 지식인들이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들은 몸으로 실천했음을(중략)

전태일 평전의 일부가 아니다. 노동가요나 노동자 시인의 작품은 더더욱 아니다. 24세의 힙합 뮤지션 Mc Sniper(본명 김정유)의 노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의 한 부분이다. 이 노래는 안치환의 노래를 부분적으로 인용한 랩 음악이다.

힙합은 1970년대 후반부터 뉴욕 할렘가에 거주하는 흑인과 스페인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생성된 새로운 문화 유형이다. 이는 낙서 미술, 빠른 리듬에 맞춰 자기 생각이나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랩, 그리고 랩에 맞춰 몸 전체를 사용해 곡예 같은 춤을 추는 브레이크 댄스 등 세 분야로 구분된다. 탄생의 기원을 할렘가에 두고 있다는 것에서 느낄 수 있듯이 랩이 기성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을 주로 노래하는 음악 장르이긴 하지만, Sniper의 관심은 뭔가 독특해 보인다.

여의도 모 방송국 근처에서 어렵사리 만남을 약속한 그는 소속사의 이관희 팀장과 코디네이터 등 4명과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힙합 스타일인 헐렁한 상의와 통이 넓고 긴 바지 차림새는 한 눈에 그를 알아보게 했다.

대학생으로 80년대를 보낸 필자에게 전태일은 쉽게 범접할 수 없고, 생각하면 항상 경건하고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하는 인물이다. 이런 전태일 열사에 대하여 어떻게 신세대 가수가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했다.

"우연히 친구를 통해 힙합과 인연을 맺은 고 2 때, 노동운동을 하는 형을 둔 친구가 부르는 '솔아 솔아~'를 처음 들었습니다. 노래의 느낌이 너무 좋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노래의 배경을 공부하던 중, 전태일 열사와 동일방직 사건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전태일 평전과 비디오를 보고서 빈곤한 시대를 살았던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솔아 솔아~'는 1,2절에 당시의 시대 배경을 담고, 3절에는 21C의 젊은이가 바라보는 7,80년대에 대한 생각을 담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노래를 담은 그의 1집 앨범은 힙합으로는 드물게 10만장 이상이나 판매되었다고 한다.

부모세대와 신세대 간 상호 이해를 돕고자

"지금 생각하면 그 시대도 잘 모르면서 오버했던 것 같아요. 현재의 젊은이의 느낌을 적었기 때문에 옳지 않다면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요즘 세대가 뭔가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이어서 그는 "단지 계기가 되기를 바랬는데 팬들이 그것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공부한 뒤에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저의 생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힙합 뮤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존 곡의 리듬이나 멜로디를 그대로 따오는 것을 가능한 배제하고 직접 작곡을 하며, 느낌이 떠오르면 바로 바로 가사도 써 둔다고 한다. 그래서 항상 종이와 펜을 가지고 다닌다. 그가 문학에 관심이 많은지, 영향을 받은 사상가나 인물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야구를 하느라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중학교 때는 야구도 공부도 안 하는 말썽꾸러기였고, 고등학교 때 힙합에 매료되면서 저의 생각을 표현해 보고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했노라고 덧붙인다.

힙합의 어떤 점이 그를 그렇게 매료시켰는지 궁금했다. "처음 힙합 음악을 들었을 때 느낌으로

우리 사회의 공통의 도덕적 규범의 붕괴를 염려하는 Sniper

뭔가 와 닿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증오, 사랑, 생각 등등... 자기만의 고유한 의식이 없으면 이 세계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남의 얘기 반복만으로는 안 됩니다."

힙합은 제 안의 분노를 표출시켜 줘

그가 힙합을 받아들이면서도 미국에서 발생한 정통 힙합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음악을 추구하는 것도 바로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리라. 처음에는 정통 힙합을 모방해 보려 했으나, 그에게는 흑인이나 미국의 정서가 와 닿지 않았다. 우연히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것은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이런 생각은 2집 앨범의 타이틀곡 '한국인' 과 '육도윤회' 에 그대로 배어난다. '한국인' 에서는 철금과 태평소와 아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육도윤회' 에서는 모두 다 버릴 수만 있다면 거듭날 수 있다는 불교의 뜻을 만날 수 있다. 그는 정통 힙합과 한국의 전통음악을 결합시켜 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원조교제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17세 소녀의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자살을 폭로하며 음악으로 그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하는 'So Sniper', 매춘여성의 애환을 담은 '기생일기', 대구 개구리 소년들의 실종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노래하는 '개구리 소년', 연예계의 비리를 고발하는 'Could Be Luv'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연대감을 놓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정통 힙합과 한국의 전통음악을 결합시켜

"저의 노래는 전부 실화입니다."는 그의 말에 이관희 팀장은 "요즈음 신세대들은 보통 핸드폰이나 연애 등에 관심이 많은데 스나이퍼는 우리 사회의 음지에 관심과 애정이 많다"고 덧붙인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소위 돈이 되는(?) 상업용 광고는 찍을 수도 없단다. 우리 사회에서 돈과는 거리가 먼 힙합을, 그것도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향하고 있는 그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다.

"'솔아 솔아~' 는 아직도 방송 불가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힙합 앨범이 꾸준히 팔려나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면서 허황된 꿈을 좇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장남으로서 IMF 이후에 힘들어진 부모님 생각도 나고, 창작의 세계에만 빠져 살고 싶은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유가 있을 때 옆에 힘 든 친구들을 도와줬는데, 친구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기도 하고..." 말꼬리를 흐리는 그는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듯 하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정몽헌 현대 아산 이사장의 죽음과 불륜을 너무나 미화시키는 드라마가 넘쳐흐르는 요즈음 TV의 세태를 지적하였다. 그는 '자살은 곧 타살이다'는 주제로 한 기업인의 자살 사건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TV 문화에 관해서 그는"어린 시절에는 도덕시험보다도 더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필자는 그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의 도덕적 규범의 붕괴 현상에 대한 염려와 함께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결합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장년이 되어서도 힙합을 계속할 수 있을지 물어 보았다."현재 4,50대는 힙합에 문외한이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들의 청소년기에 익숙해진 힙합을 계속하여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0대가 되면, 50대의 삶이 녹아든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의 문제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인다.

Sniper의 장래 계획을 들으면서 필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도 자신의 보다 성숙한 음악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예명을 저격수라는 의미의 Sniper로 삼은 김정유. 그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자라난 신세대 가수다. 민주주의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투쟁했던 윗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고민들이 있었다. 그 역시 진지한 고민으로 이같은 대열에 들어섰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변화된 상황에서 신세대의 방식으로 새로운 대결의 장을 펼치고 있다.

젊은 세대와 타인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소중해

그런 점에서 Sniper 김정유와의 만남은 젊은 세대를 자칫 외적인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버릇이 없고 이기적이며 탈 가치적인 세대로 폄하하는 것은 윗세대의 젊은 세대에 대한 몰이해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젊은 세대와 타인에 대한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대화 자세와 이해의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편집부〉